

[제주잠녀]97.<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8)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희망이 사라지는 바다 “서글퍼”

등록 : 2007년 12월 16일 (일) 14:56:39
최종수정 : 2007년 12월 16일 (일) 14:56:39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바다가 운다.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다.
벌써 며칠째 TV화면을 가득 메우는 검은 기름에 뒤덮여 도와주지 못한 사람들이 미안함을 호소하는 바다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보다 더 슬픈 것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에 사로잡힌 바다다.



▲애월항

△갈수록 바닥 들어내는 망태기

“바다, 이제 뭐 먹고 사냐”

고여진 잠녀회장(59)이 한숨을 내뿔듯 아쉬움을 쏟아낸다. 양식장을 한번 열면 한사람이 50~60kg는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다 모아봐야 35kg 남짓이다.

그렇다고 바다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몇 년간 계속해 전복 종패를 뿌렸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비로 전복 종패 사업을 할 정도로 기대감이 적잖았지만 올해는 지원을 받아 3만 마리를 바다에 뿌렸다.

3년 정도 키우면 ‘물건’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복 바다에 사실상 전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작은 것은 좀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안 보인다”는 고 잠녀회장은 “물건은 갈수록 줄어가고 나이가 들어 작업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하나 둘씩 고무 옷을 벗고 있다”고 말했다.

매월리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잠녀는 25명. 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적은 수로 바다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취나물·양배추·양파 등 발작물 소득이 짝퉁한 탓에 3일에 한번, 가끔은 새벽 2~3시부터 아침까지 바다를 지키는 일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 도심에서 가까운 탓에 자가용 등으로 문어 등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 바다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 거기에 스킨스쿠버 교육장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적잖다.

이곳 어촌계에는 ‘금성리 어촌계’도 포함돼 있다.

금성 바다에는 한해 8~12포대 정도를 계통출하하고 소라는 별도로 처리한다고 했다.

잠녀 수가 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여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 편이다. 어촌계 회의때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투표’등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도 버릴 수 없는 바다

‘물건’ 얘기만 나오면 속부터 상한다. 고 잠녀회장은 “6월 작업하는 성계는 한사람 당 30~40kg씩 작업할 정도였다”면서도 “100kg넘게 작업했던 해삼은 올 2월 작업 때 20kg정도 하나 마나했다”고 말했다.

돈이 되는 ‘물건’은 눈에 띄게 줄었고, 멘화 약세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관리만 어려워졌다.

그래도 바다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1995년 연안항이 된 매월항은 계속 확장 공사 중이다. 물류와 화물이 주로 오가는 통로지만 제주항보다 완도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적절히 활용, 여객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그 중 하나.



▲매월 도덧볼

매월항 근처에 남아있는 도덧볼 역시 바다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예전 고기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생선이나 쌀을 주면서 도덧볼에 ‘각지불(석유 등)’을 켜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고 옛 유물로 주변 정리도 했다.

이전 불턱 자리는 양어장이 12곳이나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췄지만 바다로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열린 상태다.

내년이면 ‘80’을 꼭 채운다는 고재순 할머니(79)는 아직도 바다에 간다. “하루 2만~3만원 벌이면 모아줬다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며 “사람들과 만나 얘기도 하고 매월

바다는 아직 곳에 물건이 많아 ‘할망’들도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저 먼곳에서 바다는 계속 이리오라 손짓을 해댄다.

축항 옆 ‘양식장’에는 전복 종패가 ‘물건’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코지니 너븐여니, 쇠머리, 선창하는 바다 이름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기억이 난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욕심은 갈수록 커지면서 바다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특별취재반=김형훈 문화체육팀장, 김대생 동영상 인터넷팀장, 고미 사회팀 차장, 해녀박물관>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매월읍 고내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